‘활엽수 숲’, 고운사 지킨 초록 신장

특별기고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고운사 항공 사진. 화마를 피해 간 전각 주위에는 모두 ‘활엽수 숲’이 자리하고 있다. 고운사를 지킨 것은 ‘활엽수 숲’이라는 초록의 신장이었다. 사진제공=남준기 기후재난연구소 공동대표

올 봄 산불로 고운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이 소실되었다. 불교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유산이 사라진 터라 많은 이들이 비통해했다. 전각들이야 다시 복원될 테지만 기와며 기둥, 문고리, 문지방에 쌓였을 오랜 시간의 축적을 무슨 수로 되살려낼까? 목조건축물인 사찰에 가장 취약한 재난이 화재다. 이런 까닭에 그동안 여러 사찰에서 산불을 예방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토록 처참한 결과를 마주하고 나니 과연 그동안 해온 산불 예방이 과연 적절했는지, 오히려 피해를 부추기는 잘못된 해법은 아니었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또한 어째서 불이 그토록 거칠고 광폭하게 산등성이를 넘으며 남김없이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사전에 대비할 수 없는 순전한 자연재해였는지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산불, 기후 위기가 원인일까

이번 재난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거론하는 이들이 꽤 있다. 겨울에 눈이 귀해져 봄철 가뭄으로 이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원인을 기후변화로 뭉뚱그리면 거대 담론 앞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져버린다. 중요한 건 모든 산불이 반드시 크게 번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산불의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습도를 꼽는다. 대형 산불이 여름에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전 지구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들은 하나같이 건조지대에 속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습한 기후대에 속해 있음에도 산불이 대형화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것은 세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건조한 중국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다.

모든 나무가 불타지 않는다

산불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해 보인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가더라도 모든 나무가 불타는 건 아니다.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둔 국립공원 숲은 이번 산불의 피해로부터 거의 비껴갔다. 반면 산림청이 숲 가꾸기를 하며 손을 댄 곳마다 대형 산불로 인한 화마의 비극이 낭자했다.

두 지역의 확연한 차이를 설명할 근거가 숲 가꾸기 말고 달리 없어 보인다. 자연스레 자라던 활엽수를 숲 가꾸기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베어내며 산불에 안전한 숲으로의 변화를 가로막았다. 잘린 나뭇더미는 곳곳에 방치된 채 바싹 말라갔다. 소나무의 송진은 불이 잘 붙을 뿐만 아니라 나무를 타고 불길이 위로 솟구치며 나무를 전소시킨다. 주변에 바싹 마른 나뭇더미는 불을 지속시키는 땔감이 돼버렸다. 게다가 강풍이 불 경우 위로 치솟은 불길은 주변으로 넘실대며 삽시간에 불바다를 이루기 좋은 조건을 형성한다.

임도 부족이 진화 해결이라고?

숲에 낸 길인 임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화재를 제때 막지 못했다는 산림청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막상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은 불가하다. 범종이 갈라지고 바위조차 터질 정도의 고온에 기름탱크를 장착한 소방차는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대형 산불에 화재 진압용 소방차가 드나들 임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건 진실을 왜곡하는 변명일 뿐이다.

오히려 임도는 바람길을 열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통로 역할을 했다. 이번 산불이 대형화된 원인 가운데 강풍이 불었던 게 큰 변수로 작용했다. 만약, 임도조차 없이 활엽수로 빼곡한 숲이었대도 이토록 불길이 등성이를 넘어 뻗어갈 수 있었을까?

고운사 지킨 영험한 기운은?

이 와중에도 고운사의 삼성각을 비롯해 일주문, 사천왕문, 대웅전, 나한전, 명부전 등 화마를 피해 살아남은 전각도 있다. 영험한 기운 덕분이라는 얘기가 회자되던데 그 ‘영험한’ 기운은 다름 아닌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활엽수 숲’이었다.

그렇다면 자연 방화벽 역할을 한 이 활엽수 숲을 가꾼 건 누구일까? 어치며 다람쥐가 겨우내 먹으려고 땅에 묻어둔 도토리가 참나무 숲을 이루었을 것이다. 뭇 생명의 조력으로 자연스레 형성된 숲을 밀어버리고 수종을 바꾸는 와중에 서식지를 잃어버린 생물들의 안위를 누가 한번 빌어는 줬을까?

여타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불교의 가치가 불살생이다. 숲을 가꾼다는 명분으로 속절없이 사라져간 무수한 생명 뒤로 대형 산불이라는 재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숲을 가꾼다는 말에 스며든 오만함은 불살생의 계율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불교를 흔히 ‘숲의 종교’라 한다. 〈금강경〉의 무대였던 기원정사뿐만 아니라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최초로 설법을 했던 녹야원 등 경전에 등장하는 성지는 온통 숲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사찰의 75%는 숲에 있다.

산사를 든든하게 지켜준 초록 신장들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불타버린 잔해와 대비되는 초록빛, 그 영험한 초록의 기운이 신장이며 뭇 생명의 삶터이자 우리 숲의 자연스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불자라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산불 예방이라는 허울로 멀쩡한 숲을 밀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이젠 멈춰야 한다.

社 說

지혜·자비심 갖춘 지도자 선택하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다. 그만큼 유권자인 국민들의 어깨가 무겁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정책 공약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있다. 특히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불교 공약을 발표하고 불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연등회 전승관 건립과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 및 명상 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을 약속했고, 김문수 후보는 문화유산 관리 지원체계의 전향적 개선을 비롯해 10·27법난 기념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들이 바라는 지도자는 우리 삶에 도움과 희망을 주는 사람일 것이다.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고 구성원 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지도자를 국민은 바란다. 결국 정치란 ‘자리이타(自利利他)’라는 대승보살행을 구현하는 일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덟 가지 바른 길로 ‘팔정도’를 설하셨다. 이 중 바른 견해를 갖는 정견(正見)을 비롯해 악행과 부정하지 않는 정업(正業)·정명(正命), 올바른 말을 하는 정어(正語)를 갖춘 사람이 바른 정치인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팔정도를 실천하는 대승보살을 지도자로 선택하자. 국민 역시 정견의 눈으로 선거에 임하길 바란다.

사찰음식, 전통으로 만드는 미래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사찰음식은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으로, 스님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을 포괄한다.

수행식으로서의 사찰음식은 재료를 거두어 음식을 만들고 먹는 일까지,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생명을 해치지 않으며 탐욕을 경계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식사법인 발우공양은 생명과 환경에 감사하며 필요 이상을 취하지 않는 절제의 정신을 담은 의례다.

사찰음식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전통 식문화와 상호 작용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다. 특히 불살생의 불교사상에 기초해 육류와 생선, 오신채(마늘·파·부추·달래·흥거) 없이 조리하는 채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 사찰이 위치한 지역의 향토적 특성을 반영해, 다른 국가의 사찰음식과도 차별화된다.

사찰음식은 조리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존중 사상과 절제의 철학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문화유산이다. 이번 국가무형유산 지정은 사찰음식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변화, 과도한 육식, 식량 불평등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현대인들에게 사찰음식이 제시하는 절제와 공존, 자족의 가치는 환경·윤리·수행의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할 삶의 방식이자, 미래를 위한 귀중한 자산이다. 이번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계기로 사찰음식에 관한 연구와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이 적극 이뤄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 서경보 존자 제29주기 추모다례재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세계불교초대법왕을 역임하시며 불법 홍포에 매진하신 일붕 서경보 존자의 제29주기 추모다례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종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 2025년 6월 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세검정 일붕선원
- 문의 :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5월 2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2025하계수련회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종도 스님들의 화합과 종단 발전을 위한 2025년도 하계 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사암의 발전과 스님들의 법체 강녕을 기원하며, 많은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5년 6월 11일(수)~13일(금)
- 장 소 : 보현정사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솔목길 15-5)
- 담 당 : 지화 스님 (010-3525-7190)
- 회 비 : 15만원
- 준비물 : 가사 · 장삼, 개인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등
- 문 의 : 성혜 스님 (010-8082-9503)

불기 2569년(2025) 5월 2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5월 28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